



# 구리 가격 어디까지 뛴 것인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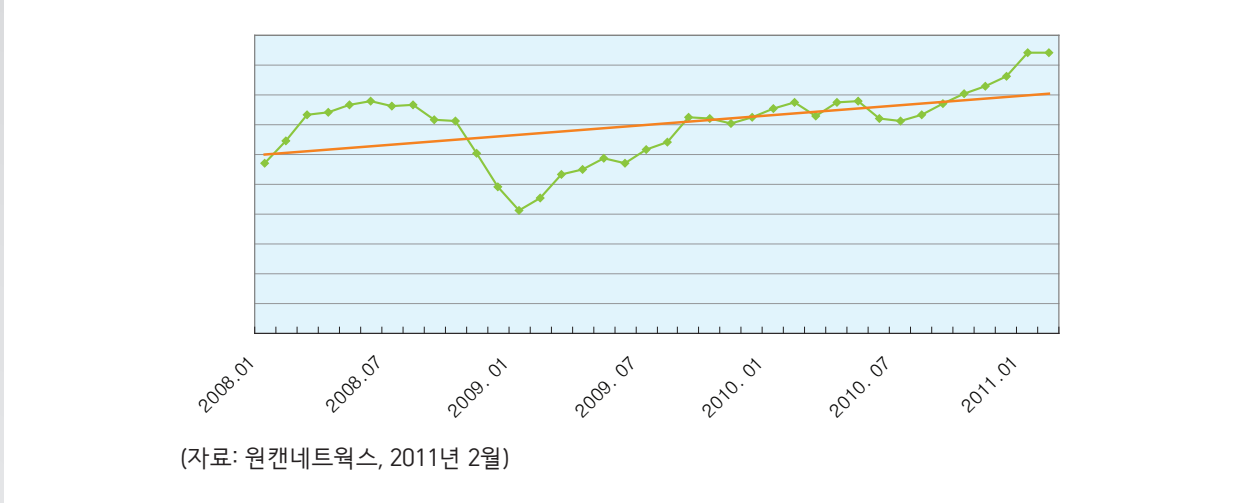
김현회 / 원켄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

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구리는 우리 설비건설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. 동관 등 관련 제품만 보더라도 2년여에 걸쳐 꾸준히 가격이 오르고 있고 올해도 하락보다는 상승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 것 같다. 관계자들은 여러 가지로 가격 인상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, 크게 세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. 아래 본문의 그래프를 보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자.

(2011년 2월~ 2011년 3월 자재 동향)

|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|---|
| 자재 전반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월부터 꾸준히 인상되던 니켈이 2월 중순에는 약보합세로 움직였으나 후반 들어 다소 강세를 보임. STS관의 2월 BASE 변동은 없었지만 3월에는 대략 250~350원 인상 예정. 동관의 3월 LME시세는 대략 400~500원 인상 예정</li> <li>- 강관류 3월 단가는 기존 네고율에서 7~10% 인상 예정</li> </ul>          |
| 강관 및 관련 제품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국이 춘절(설) 이후 공격적으로 철 스크랩을 구매하여 국제 철 스크랩 단가 인상</li> <li>- 국내 제강사들 대리점 마진 폭 조정. 3월에는 기존 네고율에서 7 ~ 10% 인상된 네고율 적용. 4월에는 15% 인상된 신희가 발표될 예정</li> <li>- 1월에 인상된 철후렌지도 한번 더 인상될 것으로 전망</li> </ul>          |
| 동관 및 관련 제품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월 LME 시세는 137원 인상된 10,997원으로 확정</li> <li>- 구리 원자재 가격은 2월에도 꾸준한 상승세여서 3월 LME 시세는 대략 400~500원이 인상될 것으로 보임</li> <li>- 동부속류는 대략 21% 인상 전망</li> </ul>  |
| STS관 및 관련 제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월 STS관 BASE는 전월 단가 적용</li> <li>- 3월은 니켈 국제 원자재 시세의 강세와 2월 단가 동결로 인하여 STS관이 대략 250~35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</li> <li>- STS 후렌지도 2월 이후 단가 인상이 예측되고 있음</li> </ul>   |
| 구매 전략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 현장 투입 물량 선구매 및 설비사들간의 연합 구매 방식으로 물량을 최대한 늘려 공급사에 단가 인하 요구</li> <li>- 자재별 최고 강점 보유 전문 판매사 수배 및 협상 필요</li> <li>- 대리점만의 단가 인하가 어려울 경우, 대리점과 공동으로 제조사와 협의 필요함.(제조사에 선급금 지급, 원자재 차원 공동 구매 등)</li> </ul> |

\* 연도별 동관 가격 동향



지난 2010년 2월호에서도 자재 값 상승을 걱정하며 그 주범인 구리 가격에 관하여 이야기했었다. 그때도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대세 상승에 무게를 두었고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한해 동안 약 20퍼센트 상승하였다.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올해도 인상에 한 표를 던져야 할 것 같다.

인상 요인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, 우선은 경기 상승이다. 세계 경제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였지만 아직 완전한 국면 전환은 없었다. 따라서 본격적인 상승기로 돌아 설 경우 원자재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. 특히 중국의 구리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. 중국의 경기가 일정 부분 머뭇거리고 있기는 하지만 구리 수요는 좀처럼 줄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. 두 번째 인상 요인은 투기 세력이다. 뚜렷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원자재만큼 매력적인 것도 없기 때문에 그들 역시 쉬지 않고 가수요를 만들어 내고 있다. 이렇게 수

요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세 번째 요인이다. 특히 노천 광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더 깊은 곳에서 원광석을 채굴해야 하므로 생산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. 이러한 요인들이 맞물려 적어도 올 상반기에는 동 관련 제품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.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선구매를 고려해야 하겠고 더 나아가 설비업체들이 연합하여 원자재를 입도 선매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. 🔄

**김현회(金炫會) 총괄본부장 프로필**



- 現원켄네트웍스(구 설비넷) 사업총괄 본부장
-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(91년)
- 삼성그룹 공채 입사(91년, 삼성화재 발령)
- 홍보실 근무(사보, 사장단 연설문 작성, 사내방송PD, 언론·인터넷 담당 등)
- 삼성그룹디자인연구원 멀티미디어학과 및 UCLA Extention(뉴미디어, 스토리텔링 등) 과정 수료
- 시장개발 및 영업기획 업무 담당(PDA영업, 리플렛 기획 등)
- 인터넷사업팀 근무(삼성화재 전국애니카서비스망 구축, 전자 인터넷사업 기획 운영 등)